【Abstract】

Plan of the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for the Eumseong Mangyisanseong

Kim, Bong-geun*
Choi, Rae-in**
Choi, Beom-sik***

Eumseong Mangyisanseong(望夷山城, Mangyi mountain fortress) that was built by Baekje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continued to be operated until the Joseon Dynasty, is a 'Serial Properties' that has an important role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position. In this paper, in order to plan the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Eumseong Mangyisanseong, we analyzed and compared and reviewed major cases among other fortresses.

The basic direction to the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Eumseong Mangyisanseong is to come up with a way to harmonize the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while observing the principle of preservation of

* Doctor of Peking University(First Author)
** The Master's Course, Dept. of Archaeology Art Histor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urator in Eumseong-gun(Corresponding Author)

the original form without damaging the value of cultural properties. To do this end, systematic scholarly excavation (preliminary and excavation research) and academic research should come first, and the results should be well reflected in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utilization.

Recogniz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assets in modern society can be maximized , when they are organically combined in a variety of aspects, we explored the academic,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spects respectively for efficient management of Eumseong Mangyisanseong and suggested several solutions accordingly.

Eumseong-gun is planning to expand related projects, such as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Eumseong Mangyisanseong and its promotion as a historic site. and the plan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principles and measures is expected to serve as an indicator for future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Keyword: Eumseong Mangyisanseong(望夷山城), Conservation, Maintenance, Utilization

연구논문

안성 도기동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양시은**

Ⅰ. 머리말
Ⅱ. 안성 지역의 자연지리적 이점
Ⅲ. 도기동산성의 축성과 운영
Ⅳ. 도기동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Ⅴ. 맺음말

【국문초록】

안성 도기동산성은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을 둘러싸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던 세종 남성골산성과 대전 월평동산성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가 있는 국원성 지역을 한강유역의 몽촌토성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한 고구려 성이다. 산성은 해발 78m의 그리 높지 않은 구릉에 입지해 있지만 사방으로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으며, 가시권역 분석을 통해 죽산으로 넘어가는 내륙 교통로와 안성천을 따라 형성된 평야지역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해당 논문은 안성시가 2021년 10월 15일에 주최한 안성 도기동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학술대회인 『안성 도기동산성의 보존과 활용』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발굴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전체 성의 구조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그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성벽의 축조 공정과 방사성탄소연대 그리고 출토 유물로 보건데, 기본적으로는 4세기대 후반에 백제가 처음 토성으로 쌓은 것을 475년 한성을 점령한 고구려가 남진하면서 목책성으로 개축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성벽의 축성 기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인데, 특히 목책의 외면을 석축으로 보강한 성벽의 경우에는 연천 무등리2보루의 축성기법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석축 성벽을 축성하였거나 혹은 개축하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안성 도기동산성은 고구려의 남진 과정과 축성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 : 안성, 백제, 고구려, 도기동산성, 토성, 목책

Ⅰ. 머리말

안성 도기동산성은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을 둘러싸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던 세종 남성골산성과 대전 월평동산성 그리고 충주 고구려비가 있는 국원성 지역을 한강유역의 몽촌토성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에 자리한 고구려 성이다. 2015년 발굴조사를 통해 산성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같은 해 12월 2일에 긴급 보호를 위한 중요문화재로 가지정된 후, 2016년 10월 24일에 사적 제536호로 지정되었다. 발견되자마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성곽유적은 극히 드문데, 문화재청의 설명처럼 도기동산성은 고구려의 영역 확장과 남진 경로를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학술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산성은 서해로 흘러가는 안성천변에 그리 높지 않은 구릉(해발 78m)에 입지하고 있으나, 인근에 높은 산이 없어 그 주변을 잘 조망할 수 있다. 유적 주변으로 토광묘와 석곽묘 등 한성백제기의 대규모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백제가 초축한 것을 475년 한성을 점령한 고구려가 개축하여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안성 도기동산성에 대한 구조와 기본적인 내용은 기 발간된 보고서와 학술 논문 및 학술심포지엄 등에서 몇 차례 다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도기동산성의 구조나 성격 보다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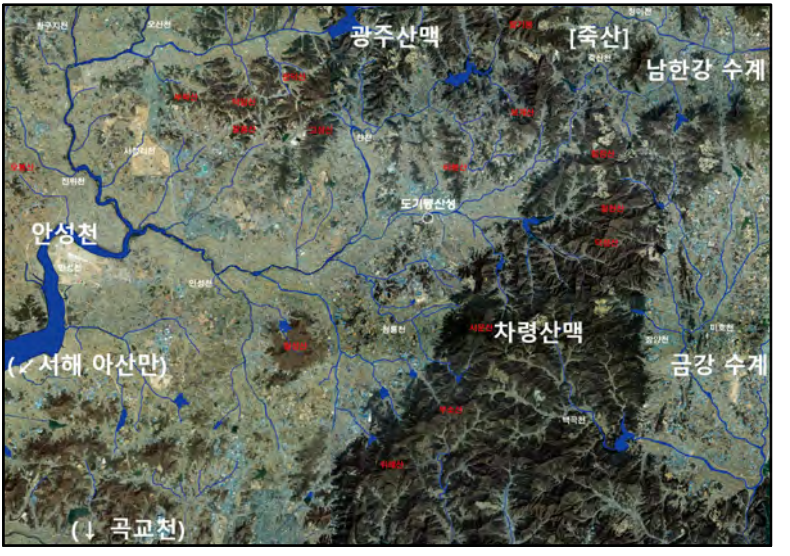
<사진 1> 안성 도기동산성의 항공사진(안성시, 2021)

Ⅱ. 안성 지역의 자연지리적 이점

도기동산성이 있는 안성 일대는 북부와 동부의 고산지와 남부의 저구릉성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는 안성천을 중심으로 드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서쪽은 안성천을 통해 서해로 연결되며, 북쪽 산지는 광주산맥의 말단으로 곳곳에 끊기는 부분이 있어 한강수계와 연결되는 용인, 광주 등 경안천 유역으로 이어진다. 동부산지는 차

령산맥의 말단으로, 산세가 약한 도덕산(해발 366m)을 통해 동쪽의 죽산으로 넘어가면 충주, 이천, 여주 등 남한강의 수계권과 연결되며, 칠현산(해발 516m) 이남으로는 금강수계와 연결되는 미호천 유역의 진천 지역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남쪽으로는 천안 직산을 통해 곡교천 유역과 통한다.

이와 같이 안성 일원은 자연지형상 한강과 금강수계권으로의 내륙 교통망이 사방으로 열려있어 충청지역을 거쳐 영남과 호남지역으로의 진출이 가능하며, 안성천 하구의 아산만을 통해서 서해의 연안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다. 특히 안성천은 진위천과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까지 조수가 들어오는 감조구간으로 과거에는 아산만으로부터 안성과 한천이 만나는 지점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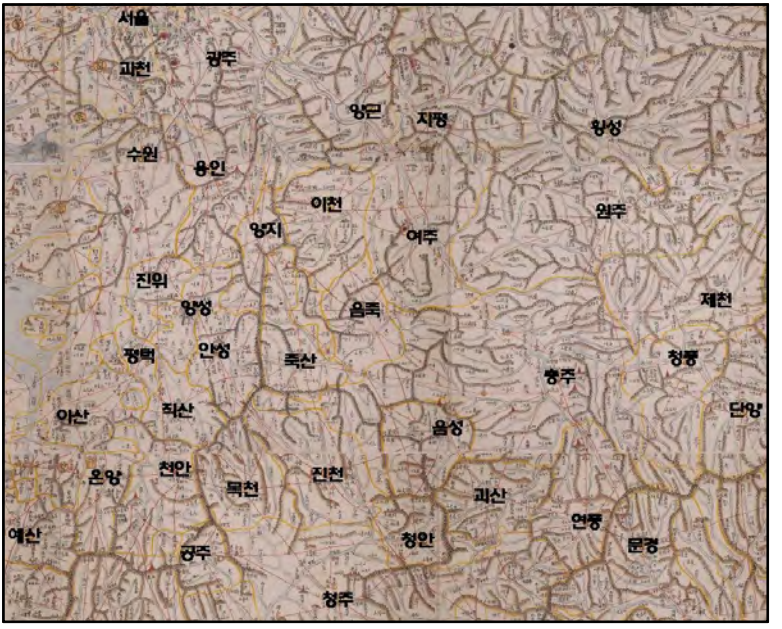


<사진 2> 안성 일원의 지형(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현재의 안성은 조선시대의 안성(安城), 양성(陽城), 죽산(竹山)이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안성군으로 통합된 후 지금에 이르렀다.

19세기에 제작된 『동여도(東輿圖)』에는 조선시대의 교통로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어, 고대 교통로를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그림 1>). 서울에서 충청지역으로 내려가는 대표 교통로로는 서울-과천-수원-진위-천안-공주를 거치는 직선 경로가 있다. 만약 안성을 거친다면, 우선 서울-과천-수원-양성-안성 내지는 서울-용인-양성-안성 또는 서울-용인-양지-안성의 경로가 가능하다. 이후 안성과 연결되는 지역으로는 직산, 목천, 진천, 죽산이 있다. 서남쪽의 직산(稷山)에서는 서해안 지역의 아산과 공주와 부여 등지와 연결되는 천안으로 이어지며, 남쪽의 목천(木川)에서는 전의, 연기, 청주, 진천 등지로 이어진다. 남동쪽의 진천(鎭川)은 청주와 청안(증평), 음성 등으로 연결되며, 충부와 바로 연결되는 동쪽의 죽산(竹山)은 공주, 청주 등지 외에도 음성-괴산을 거쳐 문경과 보은으로 갈 수 있다.

조선시대의 교통로는 고대부터 사용된 교통로가 자연스럽게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병력이나 물자 이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너비 이상의 정비된 도로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도로 유구가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물론 서천 송내리유적이나 세종 대평리유적 등과 같이 수레바퀴 흔적이 남아있는 원삼국시대로 추정되는 도로 유구도 있으나, 도로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해 형성된 것인 만큼 지역 간 물류 이동이 활발하다는 정도로 이해된다. 반면 삼국시대에는 도성과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도로 유구가 만들어진다. 물론 새롭게 만들어진 도로 유구도 있지만, 그 이전 시기부터 이용되던 지역 간 교통로를 기초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풍납토성에서는 땅을 굴착하고 모래와 사질점토를 교대로 쌓아 기초부를 조성한 다음 상면에는 사질점토와 자갈로 포장한 도로가, 세종 나성리 도시유적에서는 측구가 마련된 도로유적이 발견되었다. 백제, 고구려, 신라가 차례로 점유한 서울 몽촌토성이나 용인 마북동 취락유적 등의 사례로 볼 때, 이들 도로는 점유주체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東輿圖』에 나타난 한강 이남지역 교통로

여하튼 도로 유구를 위시한 고대의 통행로는 교통 수단에 큰 변화가 없었던 조선시대까지도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이판섭(2015: 127쪽)은 백제 한성기 호서지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 중 안성천 유역에서 삽교천과 곡교천 유역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다시 청주와 보은(옥천)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있다고 보았는데, 해당 경로는 고려 고종 3년(1216)에 몽고군이 평택에서 온수군(溫水郡)·아주(牙州) 및 청주(淸州)·차현(車峴)으로 이동할 때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도기동산성이 자리한 안성 지역은 공주, 청주, 문경, 충주 등지로 향할 수 있는 내륙 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안성 일대는 한강과 금강수계권과 연결되는 내륙 교통망이 사방으로 열려있어 남쪽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기점이자, 반대로 남쪽에서 한강과 그 이북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주요 길목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안성천 하구의 아산만 일대는 서해의 연안항로를 이용할 수 있어 교역을 포함한 물류

이동이 용이하며, 드넓은 안성 및 평택 평야를 기반으로 생계경제 자원이 풍부하여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안성 지역에는 용두리유적, 승두리유적, 웅교리유적, 만정리 신기유적, 반제리유적, 양기리유적, 개정리유적 등 구석기시대 중기 후반에서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에도 동평리유적, 양변리유적, 이현리유적 등에서 소규모의 주거지와 수혈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이후 청동기시대가 되면 안성천 유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저기복 구릉지 외에도 반제리유적과 같이 고지성 산지 정상부에서도 유적이 확인된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만정리유적, 마정리유적, 반제리유적, 신두리유적, 승두리유적, 동평리유적, 방초리유적 등이 있다. 특히 만정리 신기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의 장방형 주거지부터 중기의 송국리형 주거지와 고인돌, 석관묘, 화장묘 등이, 만정리 Ⅱ유적에서는 비슷한 시기의 취락유적(주거지 34기)가 발견되었다(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27~29쪽).

이후 고대 국가 성립기가 되면 안성 지역에도 방어시설을 갖춘 고지성 환호 취락이 등장한다. 반제리유적에서는 70여기의 주거지와 함께 환호, 목책열, 구상유구, 수혈유구, 토광묘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이들 세력은 한반도 중남부에 자리하고 있었던 마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강 유역에서 충청 지역으로 진출하기에 적합한 군사지리적 요충지라는 점과 안성천 주변의 평야 지대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백제는 4세기에 안성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일대에는 도기동산성 외에도 4~5세기대로 편년되는 일반 취락과 생산유적, 고분군 등의 적극적인 점유의 증거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기동 일원의 주거지 외에도 안성 칠곡리유적(中部考古學硏究所, 2012b)에서는 2-1지점에서 심발형토기, 호형, 장란형토기, 방추차 등이 출토된 장방형 주거지 5기가, 2-2지점에서는 유개고배,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동이, 주조철부 등이 출토된 육각형

주거지 1기가, 양기리유적(中原文化財硏究院, 2008a)에서는 4세기대 중후반의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양변리유적(中部考古學硏究所, 2012a)에서는 대호와 심발형토기, 합, 아궁이틀 등이 출토된 5세기대 토기 가마와 폐기장, 공방지 등도 확인되었다. 또한 도기동산성 주변으로 한성기 백제의 대규모 고분군(기남문화재연구원, 2019 등)이 분포한다. 지금까지 토광묘 136기, 석곽묘 6기, 옹관묘 6기 등이 발굴되었는데, 지표조사에서 주변의 구릉지 일대에 발굴되지 않은 고분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처럼 도기동산성이 위치한 안성 지역은 자연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일찍부터 사람이 거주하였고,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도 중요한 지방 거점으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Ⅲ. 도기동산성의 축성과 운영

1. 산성의 축조와 운영 시기 문제

도기동산성에서는 그 수량은 많지 않으나 한성기 백제와 고구려 시기의 유물이 모두 출토되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표 1>)에서도 연대값이 다른 시료들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는 특이값(outlier)을 제외하면, 점토블럭과 가장 바깥쪽에 있는 목책 3열은 대체로 4~5세기대의 값을, 목책 1,2열과 석축성벽 외면을 감싸고 있는 소토부는 이보다 늦은 5~6세기대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점토블럭과 목책 3열의 연대값을 중첩해보면 대략 4세기에서 5세기 초반으로 한성백제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목책 1,2열과 석축성벽은 한성백제기부터 고구려가 한성 점령 이후 충청 지역으로 내려온 시기에 걸쳐 있어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만으로는 고구려로 단정짓기 어렵지만 앞서 언급한 점토블럭의 연대값에 비해 그 값이 확연히 늦다는 점에서 백제가 초축한 성을 고구려가 개축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다.

<표 1> 도기동산성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표
(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번호	시료 위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	비고
1	북벽4 목책3열 2호 목책공	AD 250~440(90.7%)	한성백제
2	북벽5 목책3열 3호 목책공	AD 310~440(76.2%)	한성백제
3	북벽1 목책2열 석축 바깥 점토블럭	AD 350~550(95.4%)	한성백제
4	북벽1 4Tr. 남벽Ⅳ층 점토블럭	AD 400~590(95.4%)	한성백제
5	북벽1 4Tr. 남벽Ⅱ층 점토블럭	AD 230~410(95.4%)	한성백제
6	북벽1 4Tr. 남벽Ⅱ층 점토블럭	AD 340~550(95.4%)	한성백제
7	북벽6 입면 Ⅲ층 점토블럭 상층	AD 310~420(79.1%)	한성백제
8	북벽6 입면 Ⅲ층 점토블럭 하층	AD 310~420(95.4%)	한성백제
9	동벽 목책1열 27호 목책공	AD 420~590(95.4%)	
10	북벽4 목책1열 5호 목책공	AD 530~640(84.8%)	
11	북벽4 목책2열 1호 목책공	AD 420~600(95.4%)	
12	북벽5 목책1열 5호 목책공	AD 530~640(95.4%)	
13	북벽7 목책2열 2호 목책공	AD 390~570(95.4%)	
14	북벽1 목책1열 3호 목책공	AD 340~540(95.4%)	
15	북벽1 목책2열 3호 목책공	AD 410~600(95.4%)	
16	북벽1 목책1열 11호 목책공	AD 390~560(95.4%)	
17	북벽1 목책1열 13호 목책공	AD 420~610(95.4%)	
18	북벽1 목책2열 7호 목책공	AD 510~630(75.7%)	
19	동벽 목책2열 석축 바깥 목탄층	AD 420~570(95.4%)	
20	북벽5 목책2열 석축 바깥 목탄층	AD 420~610(95.4%)	
21	북벽7 목책2열 석축 바깥 목탄층	AD 420~600(95.4%)	
22	북벽1 목책2열 석축 바깥 목탄층	AD 410~600(95.4%)	
23	북벽1 목책2열 석축 바깥 목탄층	AD 420~650(9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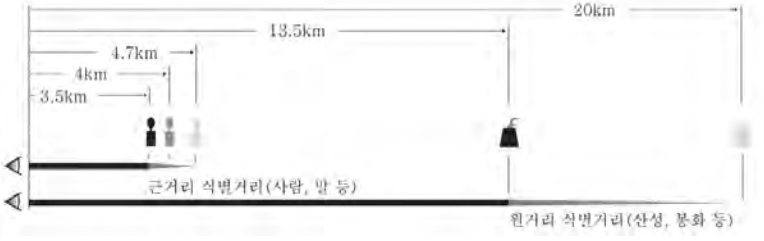
한편, 발굴보고서에서는 산성 성벽의 축조공정과 출토유물로 볼 때, 토루와 가장 바깥의 목책 3열이 결합된 한성백제기의 초축 성벽과 선축된 성벽의 상부를 정지하고 석축이 부가된 내·외 이중목책으로 수·개축된 고구려 성벽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성에서는 성벽, 주거지 및 수혈 등의 유구에서 한성기 백제 토기가 출토되고 있고, 산성 주변에서도 토광묘와 석곽묘로 구성된 4~5세기대의 대규모 고분군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도기동산성을 처음 축조한 세력은 백제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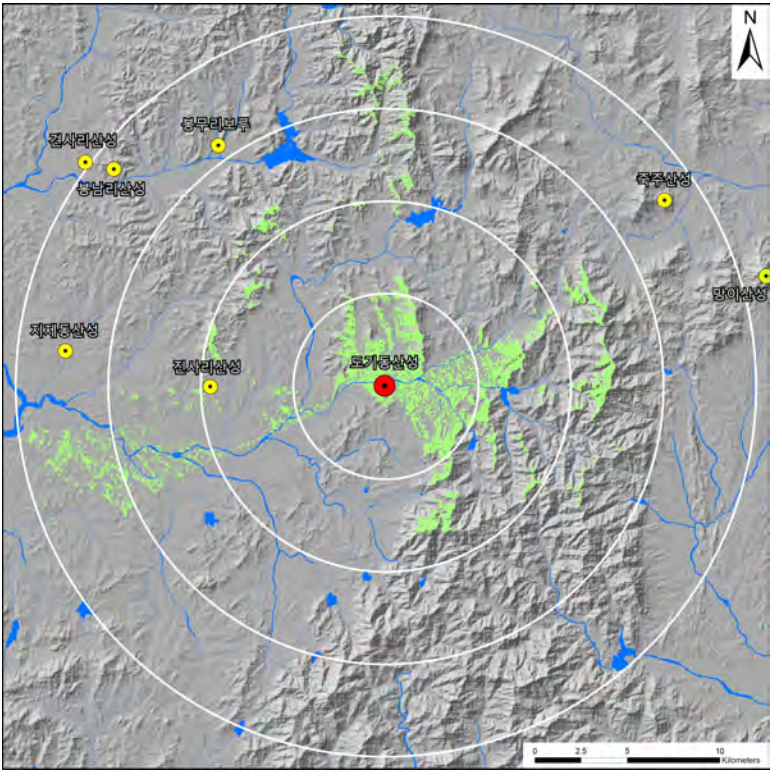
다만 황보경(2021: 7쪽)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값 중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도 있어 도기동산성은 백제가 남진하기 전에 마한에 의해 소규모 성이 먼저 축조되었다가 4세기대에 대대적인 증개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 근거로는 도기동 산52번지에서 발굴된 3호 장방형 주거지에서 원삼국시대의 호와 시루, 발형토기 등이 수습되었고, 주거지에서 채집한 목탄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값이 1~2세기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지만 중서부지역에서 아직까지 원삼국시대 혹은 마한의 토성유적은 발견된 적이 없어 황보경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가시권역으로 본 도기동산성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산성은 주변 시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형과 대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 20km 이내를 한계거리로, 5km 이내를 식별거리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백제의 교통로를 분석한 이판섭(2015: 30~31쪽)은 산성이나 봉수와 같은 대상물의 원거리 식별거리는 양호한 시계 상황이라면 20km에 이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0~13km 가량이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산성과 문헌에 나타나는 주망소(晝望所)와 봉수시설의 거리로 보아 적의 움직임을 육안으로 파악이 가능한 피아 식별거리는 반경 3.5~4.7km로, 대략 4km 내외로 추정한 바 있다.



<그림 2> 대상에 따른 인식거리의 분포(李李燮,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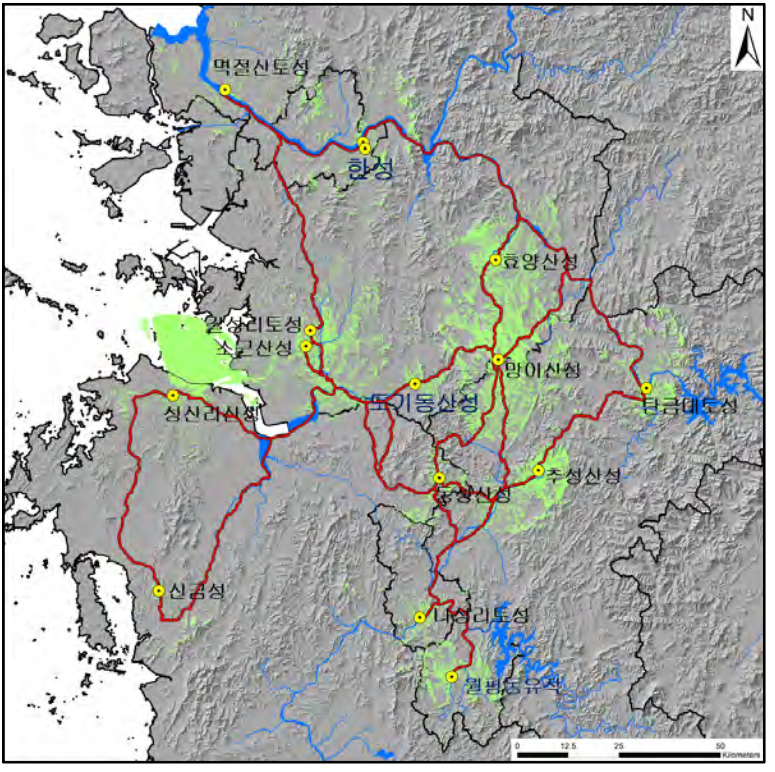


<그림 3> 도기동산성의 가시권역(5km 단위)

도기동산성의 경우 입지한 곳은 해발 78m로 그리 높지 않은 구릉이지만 사방으로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방유적이 입지하기에 적당하다. <그림 3>은 도기동산성의 가시권역[1]을 나타낸 것으로, 구릉이 연결되는 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동·서·북쪽 일대가 잘 조망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도기동산성은 죽산으로 넘어가는 내륙 교통로와 안성천을 따라 형성된 평야지역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안성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1) 가시권역을 비롯한 GIS 분석은 충북대학교 대학원생인 이승우군의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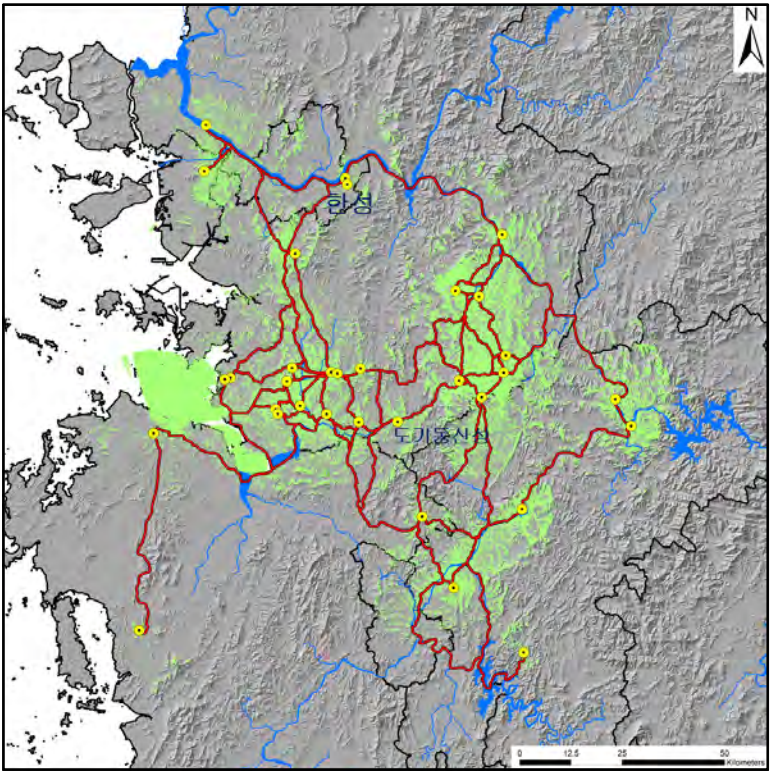
서 주 방어대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안성천 일대와 동쪽의 내륙 교통로를 함께 관측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점에 일단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림 4> 한성백제 관방유적의 가시권역과 최저비용_거리 중첩도

<그림 4>는 <표 2>에 제시한 한성기 백제 성곽유적의 가시권역과 성곽간 최저비용-거리를 중첩해본 것이다. 이에 더하여 <그림 5>는 한성백제기 유물 출토 성곽의 가시권역과 성곽간 최저비용-거리를 중첩한 것이다. 「광개토왕릉비」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396년에 백제를 공격하여 58성 700촌을 획득하였는데, 비문에 당시 공취(攻取)한 여러 성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보면 지금까지 파악된 백제 성곽 유적 수보

다 훨씬 더 많은 성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성곽 유적 중에서도 비록 현존 성벽은 신라가 축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량의 한성백제기 유물이 수습된 경우가 더러 있어 목책을 비롯한 별도 구조의 백제 관방시설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한성백제기 유물 출토 성곽의 가시권역과
최저비용-거리 중첩도

<표 1> 한성백제기 주요 성곽의 현황표

유적명	입지	해발(m)	유형	성벽	둘레(km)	비고
서울 풍납토성	평지	15.5	평지성	토루	3.5	
서울 몽촌토성	저구릉	44.8	포곡식	토루	2.29	
고양 멱절산토성	저구릉	29.3	산정식	토루	0.3	
화성 길성리토성	능선	111.6	포곡식	토루	2.31	
화성 소근산성	능선	144	산정식	토루	0.63	
당진 성산리산성	구릉	60	산정식	토루	0.32	
이천 효양산성	능선	188	산정식	토루	1.50	
음성 망이산성(내성)	구릉	472	산정식	토루	0.35	
천안 동성산성	구릉	238	산정식	토루	0.93	
홍성 신금성	구릉	80	산정식	토루	0.56	
세종 나성리토성	구릉	46	평지	토루	0.3+	
충주 탄금대토성	구릉	106	산정식	토루	0.42	
증평 추성산성(남성)	능선	242.3	복합식	토루	1.41	이성산성
증평 추성산성(북성)	구릉	242.3	산정식	토루	0.43	이성산성
안성 도기동산성	구릉	78	포곡식	토루 목책	1.4?	고구려 점유
대전 월평동유적	구릉	137	?	목책		고구려 점유

3. 도기동산성의 구조

안성 도기동산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굴조사를 통해 구릉 사면에서 토루와 목책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산성의 전체 구조가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이하에서는 성벽의 구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우선 2015년과 2016년에 발굴조사를 실시한 기남문화재연구원(2018: 290쪽)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기동산성의 성벽은 구릉의 정상부에서 경사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삭토하여 축조한 것으로 토루와 3열의 목책, 석축, 구상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조공정상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① 잔존하는 토루의 성토층은 크게 초축과 상부를 'L'자 혹은 비스

듬히 절취하고 목책공을 조성한 수·개축부인 두 개의 층군으로 구분된다. 유물은 수·개축부의 성토층에서는 백제 타날문토기와 고구려토기가 같이 출토되며, 하부의 초축 관련 성토층에서는 격자문과 승문 등 백제 타날문토기의 잔편만이 출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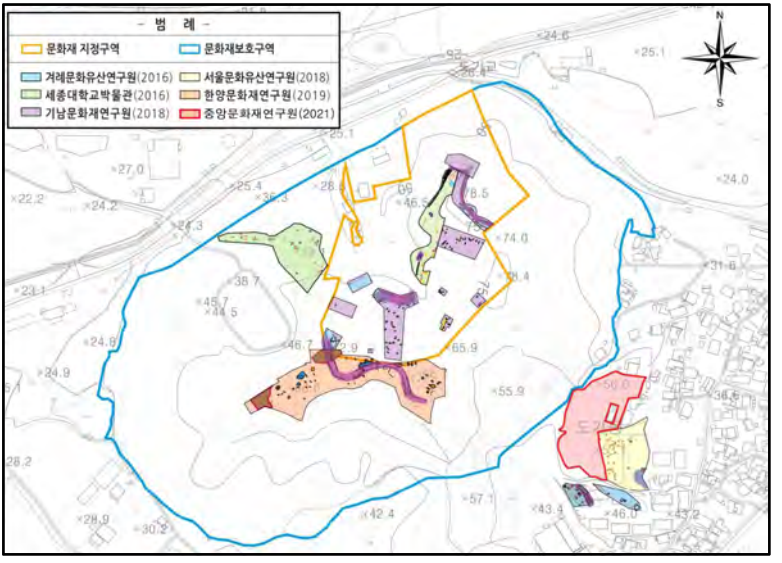
② 3열의 목책 중 1열과 2열은 선축된 토루의 성토층 상면을 굴토하고 조성하였으며, 서로 맞대응하여 일정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반면, 가장 바깥의 목책 3열은 목책 2열에 부가된 석축의 조성층 하부에서 확인되며, 토루의 기저부 조성시 기반암인 풍화암반층을 굴토하여 목책공을 조성한 후 성토하여 축조하였다. 또한 목책1·2열과 평면 위치가 서로 어긋나며, 간격도 구간 별로 일정하지 않다.

③ 목책 2열에 잇대어 부가된 석축시설은 선축된 토루의 성토층을 단이 지게 굴토하여 조성한 후 외면에 다시 성토하여 보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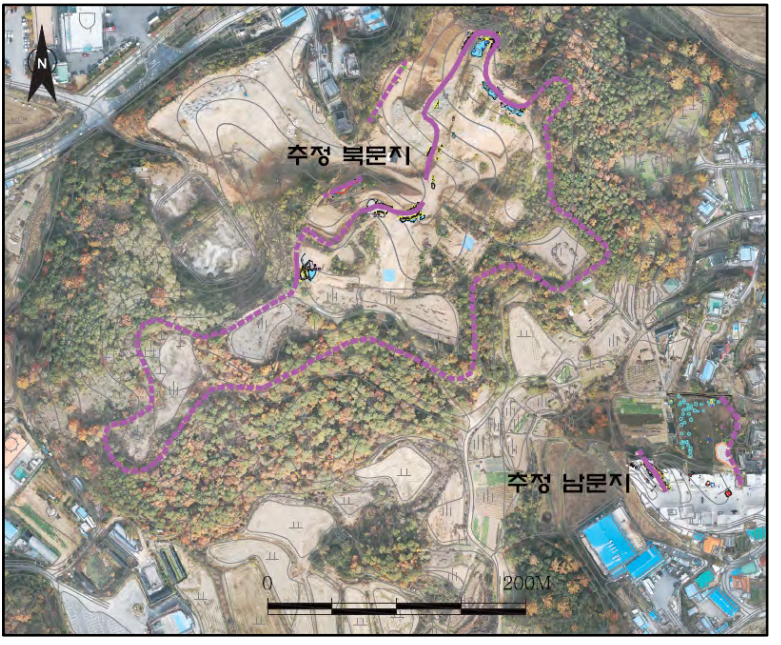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한성백제기에 토루와 함께 목책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견해와 목책 없이 토루만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는 성토기법으로 조성된 토루의 기저부 중앙 바닥면에서부터 확인되는 목주흔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것이다.

우선 김진영(2017)은 전자의 입장으로 해당 목주를 목책시설의 일부이자 목심의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토루가 완성된 이후 지상에 노출된 목주가 목책열의 중심 목주로 활용되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서정일(2021)은 후자의 입장으로, 해당 목주를 영정주로 판단하여 토루가 완성된 이후에는 토성벽의 내구성을 높여주는 희생목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토루에 목주를 깊게 박아 목책으로 사용하였다는 견해는 구조적으로도 설명이 쉽지 않지만, 산성 내 모든 토루에서 목주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성백제기 도기동산성은 토성이었을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림 6> 도기동산성 발굴조사 현황도(서정일, 2021)



<사진 3> 도기동산성 추정 범위도(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①서쪽 토루1(성토기법)

②동쪽 토루2(토루+영정주, 고구려 목책)

<사진 4> 도기동산성의 한성백제기 토루(한양문화재연구원, 2019)

한편, 산성에서는 앞에서 인용한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목책열들이 확인된다. 목책열은 1열의 목책공(동벽, 북벽1·7, 남벽), 2중구조의 목

책공(북벽4, 남벽) 단독 또는 1열 목책공 외측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석축시설(동벽, 북벽1·2·3·5·6·7, 남벽) 등으로, 전체적인 평면구조는 일정치 않다.

<사진 5> 북벽 목책열 전경(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사진 6> 목책 2열 부가 석축성벽(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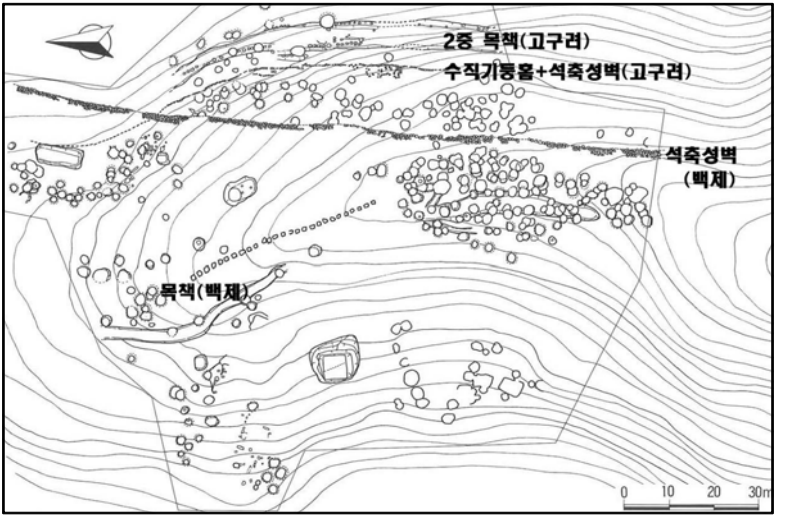
그렇지만 석축이 부가된 고구려 시기의 성벽 구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도기동산성과 같은 성벽 구조는 고구려 철제갑옷과 탄화미가 출토된 연천 무등리 2보루의 남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사진 7, 8>). 남벽은 대강 치석된 석재와 함께 점토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성돌의 틈을 점토로 메운 것은 물론이고 성벽의 외면까지도 비교적 두텁게 점토를 덧대어 석축이 무너지

지 않도록 하였다. 성돌과 점토의 혼합이라는 특이한 구조의 축성 기법은 무등리 주변에서 양질의 석재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보루 내 축대 또한 기초부는 석재를 이용하여 쌓았으나 윗부분은 강돌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석축 성벽의 안쪽에는 탄화된 나무 기둥이나 기둥구멍의 흔적들도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성벽 또는 뒷채움 구간을 지탱하는 희생목으로 판단된다. 무등리 2보루에서는 1열의 나무기둥 구멍만 확인되었지만, 도기동산성에서 보이는 2중 목책과 석축부가 구간은 남한의 고구려 보루에서 확인되고 있는 소위 '토심석축(土芯石築) 공법'으로 쌓은 석축성벽 구간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 7> 연천 무등리2보루 남쪽 성벽(서울대학교박물관, 2015)

<사진 8> 연천 무등리2보루 남쪽 성벽과 덧붙인 점토(서울대학교박물관, 2015)

한편, 도기동산성은 대전의 월평동유적의 양상과도 일부 유사하다. 기존 보고(국립공주박물관 외, 1999)에 따르면 월평동유적의 관방시설은 한성백제 시기의 1열로 된 목책과 그 서쪽에 위치한 외호시설, 고구려 시기의 2중 목책열과 석축 성벽 그리고 바깥쪽의 호, 사비기 석축 성벽 등으로 구분된다. 최종택(2016: 20쪽)은 월평동유적의 경우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해 2중 목책열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후 석축성벽이 축조된 것으로 본다. 또한 사비기로 보고된 석축 성벽 역시 축조기법이 아차산 홍련봉 1보루와 유사한 면도 있어 고구려가 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림 7> 월평동유적 성벽 현황도(국립공주박물관, 1999)

Ⅳ. 도기동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고구려 장수왕이 475년에 백제의 한성(漢城)을 점령하면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된다.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 지배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유적의 분포 현황으로 보면 금강 이북의 대전 일원까지 고구려가 차지하였음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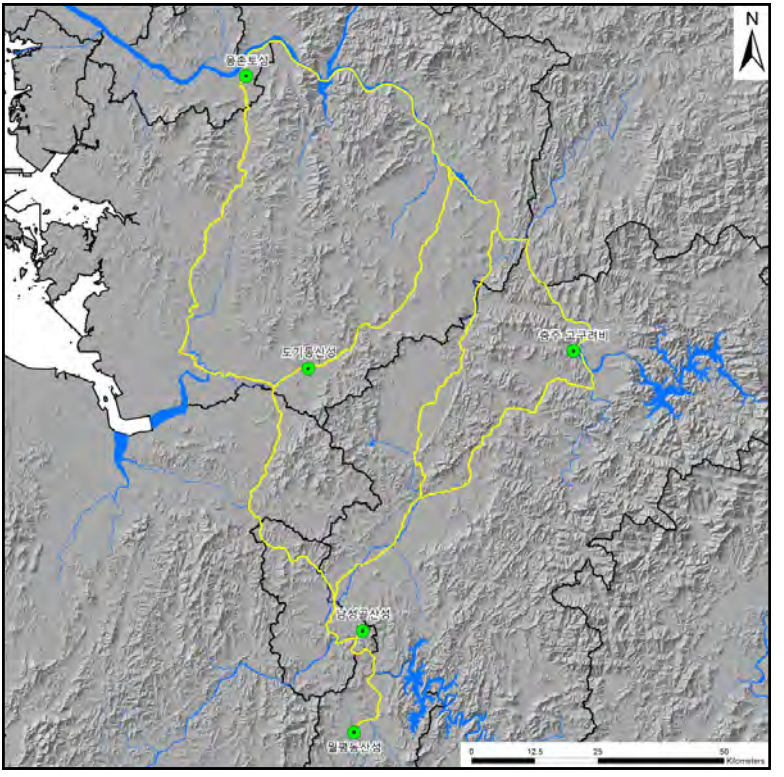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에는 고구려 한산주(漢山州)의 군현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개차산군(介次山郡), 나혜홀(奈兮忽), 사복홀(沙伏忽)이 현재의 안성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계 지명이 다수 확인되는 한주(漢州)의 경우에는 고구려가 지방 지배를 시행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여호규, 2020).

현재까지 한강 이남지역의 고구려 관방유적으로 밝혀진 곳은 몽촌토성, 안성 도기동산성, 세종 남성골산성, 대전 월평동산성이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진천 대모산성, 세종 나성리토성 등도 고구려 점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도록 한다.

안성 도기동산성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한성 공함(攻陷) 후 고구려군이 몽촌토성을 남진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한반도 남부까지 연장된 작전 및 보급선의 길이를 가늠했을 때 중간 거점의 부재(不在)가 항상 의문시 되었다. 강원도-중원 지역-경상도로 향하는 교통로 상에는 '국원성'이 있었지만, 경기도 남부-금강 유역으로 향하는 교통로 상에는 이렇다 할 거점이 보이지 않았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견으로 인해 당시 고구려가 한강 이남에도 거점을 확보한 뒤 남진을 실시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신광철, 2019: 150쪽).

한강 이남에 있는 이들 고구려의 관방유적은 성벽의 구조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도기동산성과 남성골산성, 그리고 월평동산성 모두 목책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남성골산성을 제외한 도기동산성과 월평동산성은 백제의 거점을 고구려가 재활용한 것으로, 석성이 아닌 목책으로 관방유적을 축조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성골산성과 월평동산성은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안성 도기동산성은 이들 최전방 관방 유적을 한성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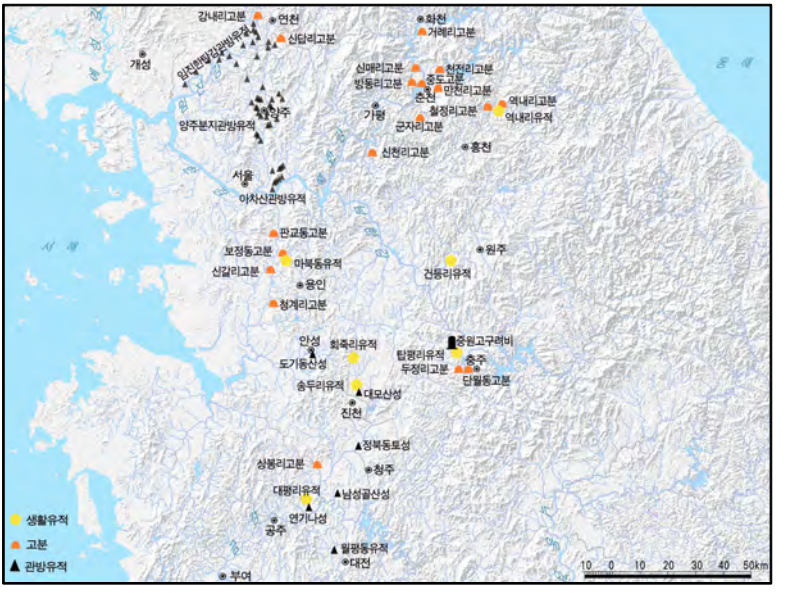


<그림 8> 한강 이남지역의 고구려 관방유적의 최소비용거리

한편, 한강 이남의 이들 관방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구연부의 형태나 문양의 여부 등으로 볼 때 대체로 아차산 고구려 보루군보다 이른 5세기 후반에 해당한다(양시은, 2014). 그렇지만 여호규(2020: 248쪽)는 도기동산성의 경우 512~548년에 고구려와 백제의 각축전이 벌어진 천안-예산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천안 일대까지 진출한 512년을 전후한 시점에 점유되어 신라와 백제 연합군에게 고구려가 한강을 내어주는 551년 직전까지 장기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기동산성은 평택평야에서 안성분지로 진입하는 길목을 공제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해 있기 때문에 군사방어와 함께 거점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안성시의 소재지로 비정되는 나혜홀(白城郡)의 치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백제와 신라는 중국 중원이나 유목국가와 비교하면 고구려의 안위에 덜 위협적이었다. 고구려는 이 두 나라와 국경을 이루는 차령산맥과 소백산맥을 천혜의 방어벽으로 삼아 남진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의 북상도 저지할 수 있었다. 이에 고구려는 고구려의 서북방에 비하면 한반도 중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입해 방어체계나 지방제도를 정비하였기 때문에 중국 요동이나 서북한 지역과 달리 남한 지역에는 중대형 산성을 축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여호규, 2020: 251쪽).



<그림 9> 남한의 고구려 유적 분포도(강현숙 외, 2020)

Ⅳ.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성 도기동산성은 백제가 축조한 성을 고구려가 남진을 위한 중간 거점으로 재활용한 관방유적이다. 특히 고구려의 남진 경로 및 한강 이남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 양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직까지는 물질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고고학적인 해석과 문헌을 바탕으로 한 역사학계의 해석에 간극이 크다.

또한 산성의 구조와 축성 및 운영 시기, 고구려의 지방지배 방식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산성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출토 유물 또한 그리 많지 않아 관련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연차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도기동산성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밝혀지기를 바란다.

[투고일: 2021.11.14, 심사개시일: 2021.11.22. 게재확정일: 2021.12.13.]

【참고문헌】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김진영, 2017, 「안성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와 성벽구조에 대한 소고」, 『高句麗渤海硏究』58.
서정일, 2020, 「도기동산성 성벽구조에 대한 재고(再考)」, 『안성 도기동 산성과 고분군 학술심포지엄 -백제와 고구려의 만남』, 안성시·기남문화재연구원.
서정일, 2021, 「안성 도기동산성의 조사성과와 과제」, 『안성 도기동산성의 보존과 활용』, 안성시·볕터건축사사무소·기남문화재연구원.
신광철, 2019, 「아차산 보루군의 변천사와 고구려 남진경영」, 『高句麗渤海硏究』63.
심광주, 2018, 「임진강유역 고구려 성곽의 발굴조사 성과와 축성법」, 『高句麗渤海硏究』62.
양시은, 2010b,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9-1.
양시은, 2014, 「남한지역 출토 고구려 토기의 현황과 특징」, 『湖南考古學報』46.
양시은, 2016, 『고구려 성 연구』, 진인진.
양시은, 2021, 「안성 도기동산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안성 도기동산성의 보존과 활용』, 안성시·볕터건축사사무소·기남문화재연구원.
양정현, 2021, 「조선 전기 驛道制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여호규, 2020,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韓國古代史硏究』99.
여호규, 2021, 「고구려의 '남평양(南平壤)' 건설과 운영」, 『역사문화연구』79.
윤성호, 2019, 「남한지역 고구려 관방시설의 연구 성과와 과제」, 『軍史』110.
李李燮, 2015, 「百濟交通路의考古學的 硏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李李燮, 2017, 「竝川川流域의 地理的狀況과 天安銅城山城」, 『湖西考古學』36.
이혁희, 2013, 「한성백제기 토성의 축조기법과 그 의미」, 『한국고고학보』89.
최종택, 2013, 『아차산 보루와 고구려 남진경영』, 서경출판사.
崔鍾澤, 2016, 「湖西地域 高句麗遺蹟의 調査現況과 歷史的 性格」, 『百濟硏究』63.
황보경, 2021, 「3~6세기 삼국의 정세와 도기동산성」, 『東洋學』83.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6,『안성 도기동 436-1번지 유적』.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 1999,『大田 月坪洞遺蹟』.
기남문화재연구원, 2018, 『安城 道基洞山城』.
기남문화재연구원, 2019, 『安城 道基洞 古墳群』.
누리고고학연구소, 2017,『안성 도기동 산18번지 유적』.
서울대학교박물관, 2015,『연천 무등리2보루 』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8,『안성 도기동 465번지 유적』.
세종대학교 박물관, 2016,『안성 도기동 산52번지 창고신축부지 내 유적』.
세종대학교 박물관, 2016,『안성 도기동 산51-3번지 건물신축부지 내 유적』.
中部考古學硏究所, 2012a,『安城 兩邊里 遺蹟』.
中部考古學硏究所, 2012b,『安城 七谷里 遺蹟』.
中央文化財硏究院, 2008,『安城 道基洞遺蹟』.
中原文化財硏究院, 2008a,『安城 兩基里 遺蹟』.
中原文化財硏究院, 2008b,『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4,『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忠淸文化財硏究院., 2003, 『大田 月坪洞山城』.
한신대학교박물관, 2010,『華城 吉城里土城Ⅰ』.
한양문화재연구원, 2019,「안성 도기동 산성 유적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